
성균관대학교 제57대 총학생회 제1차 교학 정기회의



회의 일시	2025.03.12.(수) 13:30~15:00 / 15:30~17:00
회의 장소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 600주년 기념관
참여자	제57대 총학생회 S:CATCH 학사정책국, 총학생회장단, 학생지원팀, 교무팀, 교육혁신팀

논의 안건 1. 재수강 제도 개선

총학생회: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총학생회장, 자연과학캠퍼스 총학생회장, 인문사회과학캠퍼스 학사정책국장 내정자, 자연과학캠퍼스 학사정책국장 내정자

학교 본부: 학생지원팀, 교무팀

총학생회 측에서 제작하여 사전에 공유한 자료 상호 숙지하여, 총학생회의 별도 설명 없이 학교 측에서 발언 시작.

*재수강 제도 개선 관련 총학생회 제시안

1) 재수강 기준 완화

- 재수강 상한 학점 B+ → A0 상향 조정
- 재수강 가능 학점 C+ → B0 상향 조정

2) 재수강생 T/O 제한

- 과목별 재수강생 T/O를 제한하여 재수강생-초수강생 불공정성 문제 일부 해소
- 기존 강의에서 전공-비전공 T/O와 학년별 T/O를 나누었듯이, 초수강생-재수강생 T/O를 나눈 상태로 사전, 선착순 수강신청을 진행 (*사전, 선착순 수강신청 기간 동안 진행되는 T/O의 증원은 교강사의 재량에 따름)
- 선착순 수강신청 종료 후 남은 자리에 한해 T/O 통합
- 재수강생이 전체 수강 인원의 일부로 제한됨으로써, 다수의 재수강생이 동시 재수강을 통해 A0를 대거 획득하는 상황을 막아 전반적인 학점 분포의 왜곡이나 인플레이션 방지

3) 재수강 제한책 마련

- [1안] 재수강 상한 학점을 A0로 상향 조정하되, 삼수강 이상부터는 상한 학점을 B+로 제한
- [2안] 재수강 상한 학점을 A0로 상향 조정하되, 재수강 가능 횟수를 2~3회로 제한
- [3안] 재수강 상한 학점을 A0로 상향 조정하되, 최종 학점은 가장 마지막에 취득한 학점으로 기재

학교 본부: 우선, 재수강 상한 학점이 상향될 경우 초수강생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음. 재수강생의 경우 이미 강의를 수강한 경험이 있기에 학점 취득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가능성이 큼. 때문에 재수강생이 상대적으로 A학점을 더 많이 취득하게 되어 초수강생의 평균 학점이 하락할 우려가 있음. 이로 인해 초수강생이 낮은 성적을 받아 재수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재수강을 장려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재수강생 입장에서는 성적이 상향된다면 유리하겠지만, 성적 평가 및 수강신청 등 여러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만큼 어느 부분에 더 중점을 둘 것인지 신중히 검토해야 함. 학교 측은 반복적인 재수강 보다 새로운 교과목을 수강하고 지식과 시야를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총학생회에서 초수강생 불공정성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한 ‘재수강생 T/O 제한’의 경우, 새로운 아이디어이긴 하나 이는 수강신청 서버의 부담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수강신청의 정상적인 진행을 어렵게 만들 수 있음.

또한, 우리 학교는 타교 대비 상대평가 등급 비율이 굉장히 후한 편임. 현재 절대평가 적용 과목의 범위(비전공생이 수강하는 C/L과목, 국제어수업, 플립러닝, PBL, WAVE 등)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실제 절대평가 적용 수업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음. 현재 본교 졸업생들의 성적등급 비율이 타대학 대비 낮더라도 앞으로 상향될 여지가 있으므로 향후 성적등급 비율의 추이를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음.

총학생회: 우리 학교의 성적 평가 비율이 타교 대비 학점 취득에 유리한 것은 인정함. 하지만 현재 전반적인 상황을 보았을 때 많은 학교에서 학점을 완화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음. 대표적으로 연세대학교에서 재수강 횟수 제한을 기존 4회에서 6회로 늘린 것과 한양대학교가 점진적으로 학점 포기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현황을 통해 이를 파악할 수 있음. 타교 학생들의 학점 부담이 완화되고 있는 현상을 보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 학교 학우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됨.

학교 본부: 본교는 2022년 이후 성적 평가 비율이 크게 변화되었음. 타교의 경우 코로나 이후 성적 평가 비율이 이전 수준으로 회귀한 반면, 본교는 코로나 이후에도 상대평가 등급을 50%까지 A, 90%까지 B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학칙이 개정됨. 해당 학칙이 2022년에 개정된 만큼, 2026년도 이후 졸업생들의 졸업 평점 평균이 상향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2024년부터 절대평가 수업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인해 졸업 평점 평균이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큼.

학생들이 높은 성적을 받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성적이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대외적으로 성적 신뢰도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학교 측에서는 우려하고 있음.

재수강 제도는 성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재수강 상한 학점 상향을 추진할 경우, 성적 평가 비율 등 오늘 논의한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총학생회: 재수강 제도 개선과 관련한 이야기는 2022년도부터 시작하여 비슷한 내용으로 총학생회가 계속 건의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음. 올해에도 학우 의견을 대략적으로 파악해본 결과 재수강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학점 부담 완화에 대한 수요는 확실히 있음. 이에 학교 측에서는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 등 근본적인 문제를 우려하며 타고 대비 낮은 학점이 나타나는 현재 우리 학교의 현상이 특수한 상황이라 판단하는 것 또한 이해가 감. 오늘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총학생회 차원에서 다각적인 시각에 비추어 학우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세부적인 수요 조사를 진행한 후 다시 논의 자리를 만드는 것을 건의드리고 싶음.

학교 본부: 재수강 제도는 성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현재 성적 평가 등급 비율 및 절대평가 수업 확대 등으로 인해 앞으로 발생하는 졸업생들의 성적 분포 비율의 추이를 보면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결론: 상기 사안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학우들에게 해당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추후 논의를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함.

논의 안건 2. 교내 장학금 확대

총학생회: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총학생회장, 인문사회과학캠퍼스 학사정책국장 내정자, 자연과학캠퍼스 학사정책국장 내정자

학교 본부: 학생지원팀

총학생회: 금년도 학부 등록금 인상으로 인해 국가장학금 II유형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면서 저소득층 학우들의 부담이 커진 상황임. 따라서 문행장학금 확대 또는 다른 대안 마련을 통해 국가장학금 II유형의 보전을 추진함으로써 저소득층 학우들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국가장학금 I 유형이 확대되기는 했으나 8분위에서 9분위까지로 수혜 대상이 확대된 것일 뿐, 8분위 이하 학우들에게 실질적인 지원 금액이 확대된 것은 아님. 지난 등록금심의위원회 진행 시에도 국가장학금 II 유형 보전 계획 마련이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고, 본 교학 정기회의 이전 진행되었던 실무회의에서도 이와 관련해 일부 협의한 부분이 있었음. 따라서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지원책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를 원함.

또한, 총학생회 측에서 진행한 설문(등록금심의위원회 학우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 및 대규모 설문조사 ‘ASKk:U’)을 통해 많은 학생이 등록금 환원을 실질적으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음. 장학제도에 있어 다수 응답자가 ‘한정된 수혜 대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특히 60% 이상의 응답자가 장학금이 확대될 경우 성적우수장학금 확대가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학우들이 성적우수장학금에 높은 수요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또한, 성적우수장학금의 총액이 동일할 시, 적은 수의 학생에게 많은 금액을 지급하기보다는 지급 금액을 낮추더라도 더 많은 학생이 수혜받을 수 있도록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학우들이 더 많은 동의를 표하였음. 이에 따라 국가장학금 II 유형 보전을 가장 우선으로 하되 성적장학금의 개편 및 확대 또한 함께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 판단됨.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안을 제시함.

- 소득분위 1~5분위 학생들의 경우, 등록금 전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문행 장학금 확대
- 소득분위 6~8분위 학생들의 경우, 등록금 일부를 보전할 수 있도록 문행 장학금 확대
- 등록금의 10%를 지급하는 성적우수장학금 ‘장려’ 신설

학교 본부: 13년 만의 등록금 인상으로 인해, 학생사회에서도 변화가 많고 장학금을

운영하는 학생처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국가장학금 II 유형 수령이 불가해진 상황에 따라 많은 학생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학생처에서는 가계 곤란한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우선시될 수밖에 없음. 따라서 학교 측에서는 총학생회가 제시한 안 중 가계곤란 장학금 확대가 우선순위에 해당함.

2024년도에 성적우수장학금 지급 범위와 관련하여 이전에 체감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급 금액이 적다는 학생들의 불만 표출 등이 있어 수혜 인원을 줄이고 장학금액을 늘리는 쪽으로 개편하였으며, 개편을 하면서 성적우수장학금 예산을 전년대비 33% 증액하였음. 성적우수장학금이 최근 확대된 만큼, 현재로서는 성적우수장학금을 추가로 신설하는 것이 시기상조라고 판단됨.

따라서 학교 측은 다음과 같이 장학금 예산 편성을 고려하고 있음.

- 소득분위 1~5분위 학생들의 경우, 등록금 전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문행 장학금 확대
- 소득분위 6~8분위 학생들의 경우, 등록금 일부를 보전할 수 있도록 문행 장학금 확대
- 성적우수장학금 확대 계획 없음

등록률, 재학 여부, 재학생 소득분위 등에 따라 장학금 예산이 변동될 수 있으나, 현재 기조는 등록금 인상에 따라 확대된 장학금 재원의 대부분을 문행 장학금 확대에 투입하여 가계곤란 장학금에 사용하고자 함.

총학생회: 총학생회에서 진행했던 설문조사에서도 많은 학우들이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수혜받을 수 있는 장학금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등록금 인상은 모든 학우에게 적용되므로, 총학생회 측은 등록금 심의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보편성을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주장하고 있음. 국가장학금 II 유형 수령 불가에 따라 저소득층 학우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문행 장학금 증액 필요성도 인정함. 이에 따라 총학생회 또한 문행 장학금 확대를 우선적으로 건의한 것임. 다만, 등록금 인상은 전체 학우를 대상으로 적용되다 보니 등록금 인상 재원을 모든 학생이 누릴 수 있을 만한 시설 보수, 장학금 제도 등의 정책에 투자하는 방향성도 함께 고려해주길 바랍.

또한, 성적우수장학금과 관련하여 학우들의 의견이 이전과 크게 달라진 점은 불가피한 문제라고 생각함. 소수에게 높은 금액을 지급할 경우 받지 못한 학우들의 불만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반대로 다수에게 적은 금액을 지급하면 체감 효과가 미미할 수 있음. 성적우수장학금이 개편되는 방향에 따라 학우들의 불만은 어느 쪽으로든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함.

‘장려’ 신설을 제안한 것도 이러한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는 절충안이라 생각하여 제안드린 것임. 현재 지급되고 있는 최우수/우수 성적장학금은 높은 금액을 유지함으로써 학우들이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비교적 적은 금액을 더 많은 학우들에게 지급하는 ‘장려’ 파트를 추가적으로 신설하는 것이 엇갈렸던 의견들을 조율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됨. 성적우수장학금 개편에 대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함.

학교 본부: 복지 정책의 근간은 가계 곤란한 학생을 우선 지원하는 것임. 이에 따라 현재 상황에서 예산을 가계곤란 장학금에 투입할 수밖에 없는 정책 방향성을 이해해주길 바랍.

올해부터는 장학금 중간 결산 제도를 도입하여, 예산 재분배를 적시성 있게 조정하는 프로세스를 새롭게 진행할 예정임. 따라서 올해 모든 장학 예산을 현재 단계에서 확정 짓자는 것은 아니며, 2학기 초에 잔여 장학 예산 재분배와 관련해 다시 한번 논의하며 최적점을 찾아가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결론: 2025-1학기의 경우, 다음과 같이 장학금 지급하기로 함.

- 소득분위 1~5분위 학우들의 경우, 등록금 전액 보전이 가능하도록 문행 장학금 지급
- 소득분위 6~8분위 학우들의 경우, 등록금 일부 보전이 가능하도록 문행 장학금 지급
- 2학기 장학금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차후 다시 논의 예정

논의 안건 3. 온라인 강의 환경 개선

총학생회: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총학생회장, 인문사회과학캠퍼스 학사정책국장 내정자, 자연과학캠퍼스 학사정책국장 내정자

학교 본부: 학생지원팀, 교육혁신팀, 교무팀

총학생회: 온라인 강의 환경과 관련해 현재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운영 및 관리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학우들의 의견을 공유하고자 함. 오늘 파악한 현황을 바탕으로 추후 개선 방안을 요청할 계획임.

지난 1월 총학생회에서 시행한 ‘등록금심의위원회 학우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에서 강의 재사용 및 강의 화질/음질에 대한 학우들의 불만이 다수 확인됨. 이에 따라 지난 2월 실시한 대규모 설문조사 ASKk:U를 통해 구체적인 학우들의 의견을 파악하였음. 해당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0%가 ‘온라인 강의 수강 시 충분한 학습을 위한 환경이 제공되지 않는다’고 응답

-응답자의 65%가 ‘온라인 강의 수강 시 강의의 질이 좋지 않아 따로 자료를 찾아 개인 학습을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

중대형 온라인 강의 및 플립러닝 확대를 추진하고자 하는 학교 측의 방향성에 따라 안정적인 온라인 강의 환경 마련이 더욱 필요한 상황임. 이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질의함.

1. 현재 온라인 강의 업데이트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2. 온라인 강의의 질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3. 온라인 강의의 화질 및 음질 관리 현황은 어떠한지
4. 강의평가에 온라인 강의 관련 문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강의평가 결과가 교강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고 개선 요청이 들어가는지

학교 본부:

1. 온라인 강의 업데이트 주기

현재 모든 온라인 강의에 2024-2학기부터 매년 30% 이상의 개선을 권고하고 있음. 매년 모든 강의를 동시에 개선하기는 어렵기에 3년 주기로 100% 개선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이 매년 일부라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안내하고 있음.

다만, 100% 개선이라는 것은 모든 강의를 재촬영한다는 의미가 아님. 이론 수업의 경우 기본적인 내용은 대부분 동일하므로, 매년 동일한 내용을 재촬영하기보다는 사례나 예제 등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임. 물론 화질 및 음질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전면 재촬영이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음.

2. 온라인 강의 질 관리

학교 측에서도 온라인 강의의 질 문제를 인식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24-2학기에 모든 온라인 강의를 일괄 점검하였고 문제가 있는 강의는 교강사에게 개선 및 소명서 제출을 지시하였음. 향후 정기적인 점검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며, 기준 미달 강의는 단과대학에 통보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교수의 책임 학점 인정을 제한할 계획.

3. 화질 및 음질 관리 현황

현재 온라인 강의는 HD급 화질로 업로드되고 있음. 고화질에 익숙한 세대이기에, HD급 화질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음. 그러나 화질을 높일 경우, 아이캠퍼스 서버에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어, 화질과 음량을 균형 있게 유지하면서 판서가 명확히 보이는 수준인 HD급 화질로 업로드하고 있음.

추가로 총학생회에서 전달한 학생들의 온라인 강의에 대한 불편 사항을 직접 시찰하며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경우 오프라인 수업 녹화본에서 발생한 문제였음. 오프라인 수업 녹화본은 복습용 자료로 제공되는 것으로, 녹음 상태 등은 교강사의 마이크 사용 여부 등 수업 방식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이기에 학생들의 이해가 필요함.

4. 강의평가 시스템 개편

온라인 강의 콘텐츠 점검과 더불어, 2025학년도부터 강의평가가 개편될 예정임. 기존 평가 문항을 간소화하여 꼭 필요한 문항만 남길 예정이며, 온라인 강의의 품질 및 콘텐츠 제공 관련 문항 또한 포함되어 있음. 이를 통해 낮은 점수를 받은 강의를 점검하는 등의 방식으로 활용할 계획임.

또한 2025학년도부터 기존의 ‘학생제안주간(3-4주차 실시)’을 폐지하고 학기 내 상시 운영되는 ‘학생수업제안’ 제도가 신설됨. 이에 따라 학생들은 학기 중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교강사는 이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야 함.

결론: 총학생회에서 학교 본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함.

- 노후화된 녹화시설 점검 및 개선
- ‘학생수업제안 제도 홍보를 위해 관련 내용 공유
- 총학생회에서 시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된 개별 강의의 불편 사례 검토 및 개선